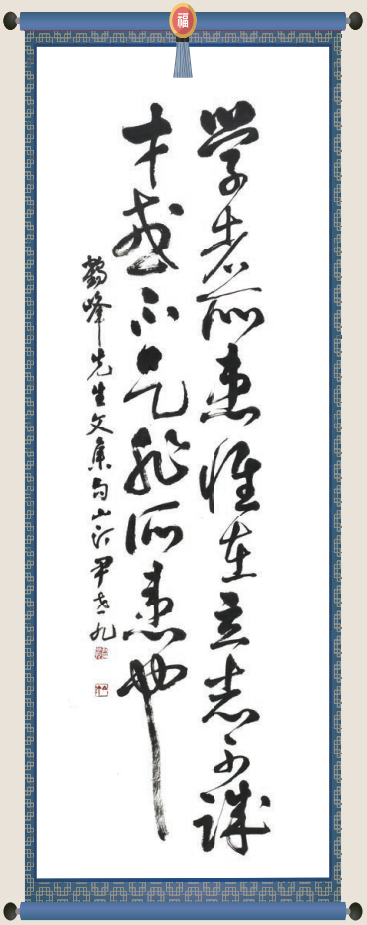
새해의 다짐, 뜻을 세우다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가치

글, 한시 운호 이진호
서예 산정 윤세구

세월이 흐르고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 달력이 벽에 걸리듯,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다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심을 세우는 데는 능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성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글이나 작품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서예를 같이 즐기는 지인이 새해를 맞이하며 서예 작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작품에는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 선생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學者所患은 惟有立志不誠이요,
才或不足은 非所患也니라

"배우는 자가 걱정할 바는 오직 뜻을 세우는 것이
성실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고,
재주가 혹여 부족한 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이 글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새해의 다짐을 한 편의 한시로 풀어보았습니다.

新年立志 (새해의 다짐)

新年振墨意尤深(신년진묵의유심)
새해의 붓글씨에 담긴 뜻이 매우 깊어,

立志應勤道不沈(입지응근도부침)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나아가, 그 길을 잃지 않으리.

質短何憂終可補(질단하우종가보)
재능이 부족함은 무엇이 두렵겠는가, 끝내 채울 수 있으니,

修途篤實業成金(수도독실업성금)
공부의 길에 성실하면 뜻은 마침내 금과 같으리라.

새해와 함께 떠오른 다짐

새해를 맞아 떠오른 첫 구절은 **'新年振墨意尤深'**입니다. 새해 첫날, 누군가는 일기장을 펴고 누군가는 책상에 앉아 새 다짐을 써내려갑니다. 비록 단순한 글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새로운 각오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예 작품에 담긴 김성일의 글은 우리가 왜 뜻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조차 주저하지 말고,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뜻을 세우고 지키려는 성실함이 부족할 때입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구절 **'立志應勤道不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성실함(勤)'입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만, 그 뜻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운 뜻을 끝까지 잃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 구절 **'質短何憂終可補'**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성일의 글처럼, 재능의 부족함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바로 성실함과 노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과 빠른 성공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조급함에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성실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성실함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마지막 구절 **'修途篤實業成金'**은 배움과 성실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修途(수도)'**는 배움과 자기 수양의 길을 뜻하며, **'篤實(독실)'**은 진실되고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실한 사람은 마침내 금과 같은 귀한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어떤 재능도 채울 수 있고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돌을 깎아 보석을 만들 듯, 성실함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마침내 큰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방송기술인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목표가 막연하거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성실함을 바탕으로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운 뜻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선생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전해줍니다. 새해의 다짐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가운데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 가슴속에 작은 뜻 하나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성실하게 실천한다면, 한 해가 끝날 때쯤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방송기술인 동료 여러분 모두가 모두 성실함으로 단단하게 성장하고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시 형식 설명

이 한시는 **칠언절구(七言絶句) 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칠언절구는 한 구절이 7자씩 4구로 이루어진 한시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형식과 운율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식: 칠언절구(七言絶句)

칠언절구는 한시의 기본 형식 중 하나로, **한 줄에 7글자씩 총 4줄**로 구성됩니다. 각 구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집니다.

- **1구(기구, 起句):** 시의 시작을 알리며, 주제를 암시합니다.
- **2구(승구, 承句):** 1구를 이어받아 의미를 확장하거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 **3구(전구, 轉句):** 시의 전환점으로, 감정의 변화나 대조를 보여줍니다.
- **4구(결구, 結句):** 시의 마무리로, 주제를 강조하거나 여운을 남깁니다.

운율: 평측(平仄)의 규칙

한시에서 평성(平聲)과 측성(仄聲)의 배열은 중요한 운율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칠언절구는 평기식(平起式)과 측기식(仄起式)으로 나눕니다.
이 시는 평기식(平起式)으로 시작되었으며, 운율은 다음과 같이 배열됩니다.

구절	平仄	평·측 배열
新年振墨意尤深	平平仄仄仄平平	(평평측측측평평)
立志應勤道不沈	仄仄平平仄仄平	(측측평평측측평)
質短何憂終可補	仄仄平平平仄仄	(측측평평평측측)
修途篤實業成金	平平仄仄仄平平	(평평측측측평평)

운자(押韻)

칠언절구 한시에서 1구 2구와 4구의 끝 글자는 운(韻)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시에서는 深(심), 沈(침), 金(금)이 **侵(침노할 침)**을 운으로 합니다.

의미와 구성

- **1구 (起句) : '新年振墨意尤深'**
  새해의 붓글씨에 담긴 뜻이 더욱 깊다는 표현으로 시작하며, 새해의 다짐과 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 **2구 (承句) : '立志應勤道不沈'**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드러내며,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3구 (轉句) : '質短何憂終可補'**
  자질이나 재능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며 시의 흐름을 전환합니다.

- **4구 (結句) : '修途篤實業成金'**
  성실함과 노력을 통해 배움의 길에서 금과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의 주제와 문학적 특징

이 시는 새해를 맞아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나아가라'**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문학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적 표현

- '新年振墨(새해의 붓을 휘두른다)'라는 표현은 새해 다짐과 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 '業成金(업적이 금과 같아지다)'는 성실함의 결과가 가치 있는 성취로 돌아옴을 비유합니다.

대칭적 구성

-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결심과 성취를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 둘째 구절과 셋째 구절은 실천의 중요성과 부족함에 대한 극복을 강조합니다.

교훈적 성격

- 학봉 김성일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실함과 자기 수양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훈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시는 새해를 맞아 다짐을 세우는 모든 이에게 따뜻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칠언절구 평기식**의 형식을 통해 운율과 의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으며,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새해, 이 한시가 독자들에게 뜻깊은 다짐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한시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KBS 남산송신소에 근무 중이며,
틈틈이 한시를 짓고 서예와 문인화를 취미로 즐깁니다.
KBS 사군자회 회원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산정 윤세구(山汀 尹世九)
국제서법예술연합 이사
강화서예가협회장
한국서예가협회 회원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